

1993年 癸酉年을 맞으면서

李忠雄

서울대학교 電子工學科 教授

1992年 壬申年은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追憶을 남긴 해이다. 왜냐하면 89年 10月號 電子工學會誌, 92年 3月號 電氣學會誌에 韓半島에 모이는 氣를 電氣理論에 對應시켜 풀이하여 豫測한 大選結果가 的中했기 때문이다. 氣論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白頭山에서 發生한 氣는 蓋馬高原을 거쳐 太白山脈을 흘러 내려가다가 山脈이 끝난 釜山에서 멎는다. 白頭山을 發電機로 보고 太白山脈을 電線으로 보면 電線의 끝인 終端에 電壓이 最大가 된다. 이 定在波 電壓은 發電機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電壓이 떨어진다. 反面에 電流는 終端에서 最小가 되며, 發電機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增加한다. 電壓은 서울地域에서 最小가 되고 電流는 最大가 된다. 電壓은 電荷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전류는 電荷가 移動하는 現象이다. 따라서 電壓은 사람을 움직이는 氣에 該當되고 電荷는 사람 또는 돈에 對應된다. 따라서 서울地域에서 태어난 사람은 氣가 약하여 大權을 잡을 수 없고 서울地域에는 사람과 돈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 그리고 國民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氣가 最大인 嶺南地方에서 出生한 사람에게 크게 생긴다. 統計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 歷史上 嶺南地方에서 出生한 사람이 權力을 잡은 사람이 많았고 최근에는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金泳三 諸氏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太白山脈에서 뻗어나온 小白山脈은 木浦地方에서 끝난다. 물론 湖南地方도 山脈의 끝인 終端에 定在波가 생기므로 이 地方의 出身은 氣가 强하다. 그러나 嶺南의 氣와 湖南의 氣는 약간 다른 데가 있다. 嶺南은 東쪽에 位置하여 항상 해가 떠 오르는 것을 보게 되므로 陽이 좀 强한 氣가 된다. 湖南은 西쪽에 있으므로 항상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되어 陰이 좀 强한 氣가 된다. 이와 같은 緣由에서 嶺南出身이

큰 權力을 쥐는 傾向이 많고 湖南出身은 藝術方面, 즉 書畫, 音樂으로 大成한 사람이 많고 官인 경우는 法曹界에서 出世한 사람이 많다.

電氣現象에서 電氣를 띤 物體가 있으면 그 近傍에 떨어져 있는 다른 物體에 反對 極性的의 誘導電氣가 發生한다. 마찬가지로 陸地의 氣가 陽이면, 섬에는 陰의 氣가 생긴다. 陽을 輿로 보면 陰은 野가 된다. 그러므로 섬은 野黨이 强하고, 男性보다 女性이 强하다. 巨濟島에 다리를 놓기 전까지는 金泳三씨는 野黨으로 活動하였다. 巨濟島에 陸地와 連結하는 다리를 建設한 以後에 서서히 陸地의 氣가 흘러 들어가 巨濟島의 氣가 陸地의 氣와 같은 極性이 되어 金泳三씨는 野黨에서 與黨이 되는 運命에 놓이게 되었으며, 巨濟島가 太白山脈의 終端이 되어 陽의 氣가 最大가 되어 大權을 잡게된 것이다.

巨濟島도 섬인 관계로 陸地와 反對 極性的의 氣, 즉 陰의 氣가 아주 强하다. 따라서 與黨으로 出馬하면 當選되기 어렵다. 그리고 女性이 男性보다 드세며, 男子는 發展하기 어렵다. 아들을 낳으면 陸地로 留學을 보내고 陸地에서 살게하는 것이 좋다. 濟州道에 하루방(男性的의 象徴)이 사방에서 있는 것은 陰의 氣를 누르기 위한 것이다.


白頭山은 交流發電機와 같다. 交流에는 變化의 週期가 있다. 白頭山에서 우리나라의 山脈으로 흐르는 氣가 零의 狀態에 있었을 때를 1950년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韓國의 氣가 약하여 거의 韓半島 全體가 廢虛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592년 壬辰亂이 일어났던 때를 韓半島의 氣가 零의 狀態에 있었다고 본다면, 零과 零 사이의 期間이 358년이 된다. 따라서 韓半島 氣의 變化는 358년 間隔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리고 1950년부터 358년의 折半인 179年

동안은 韓半島의 氣는 上昇期에 있게 된다. 그런데 6.25動亂이 일어난지 42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韓國의 運勢는 137年間 上昇期에 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景氣가 不振한 것 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 韓國의 앞날이 어두운 것 같이 보일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30년이라는 아주 짧은 期間에 제로 狀態에서 世界 10位圈으로 跳躍한 데서 생기는 over shooting 現像이며 over shooting 現像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가라앉는다. 現在 中小企業의 극

심한 不況등 우리나라가 격고 있는 試鍊은 다음 段階의 跳躍, 즉 先進國으로 進入하기 위한 準備作業이다.

그러므로 우리 大韓電子工學會 全會員은 勿論 우리나라 全體가 하면 된다는 信念으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成功하게 마련이다. 1993年은 新韓國創造運動을 벌이기 始作하는 해로 뜻이 아주 큰 해이다.

끝으로 大韓電子工學會 會員 여러분의 大成을 빈다. 

筆者紹介



李忠雄

1935年 5月 3日生

1958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60年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72年 일본동경대학 전자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1964年 ~ 현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988年 1月 ~ 1988年 12月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1989年 1月 ~ 1989年 12月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1989年 1月 ~ 현재 IEEE Fellow

주관심분야 : 통신방식, HDTV, 초고주파, 의용공학 등